

북면 방치 한교아파트 해결방안 찾았다더니, 어떻게 되나 시 운영중인 장난감 대여소 출산용품·돌사진 용품 대여를...

1644호 편집위원담



본보 제1644호 편집위원회(위원장 조병훈·사진) 회의가 지난 1일(수) 오후 6시 30분 본사 회의실에서 있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내 지중화도로 공사 구간의 미흡한 포장 문제와 정읍역 활성화와 관광 핫플레이스 사업에 대한 추진 경과를 확인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또한, 내장산리조트 연결도로 공사의 경우 예산이 부족한데다 인근 도로변 주민들의 반대까지 겹쳐 사실상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형태의 도로가 개설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로 했다.

▷‘제보/민원’에서는 시내 지중화사업을 마친 주요 공사구간 임시포장 및 포장후에도 ‘들쭉날쭉’해 완성도가 낮다는 불만이다.

특히, 우암로 지중화구간 임시포장 및 포장구간 미흡에 대한 불만이 크며, 얼마전 본보 제보를 통해 재공사를 마친 상동 구 교육청 앞 구간이 침하현상도 다시 발생하고 있어 정읍여중 구간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편집위원들은 이전 ‘덜컹맨홀’ 정비때는 매끄럽고 깨끗한 도포포장이었는데 다른 이유 무엇인지 궁금하다면서, 공사구간에 대한 준공검사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도 그루’에서는 정읍역 활성화를 위한 정읍시 비전 47지에 대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정읍시가 추진중인 이 사업은 지하차도 복개공사, 역전 지구대 이전, 정읍역-정읍천 연결도로 개설, 컨퍼런스 센터 건립 등이다.

편집위원들은 “정읍역 핫플레이스 조성사업인 이 사업이 과연 외지 탐방객을 불러모을 수 있을지, 규모면이나 예산 투자면에서 그정도 수용 가능한 공간인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서 “기존 정읍역 둔치에 있는 각종 시설도 다양한데 추가로 예산을 들인다해도 규모가 적어 제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것이 궁금하다’에서는 내장산 리조트 연결도로

의 효율적인 개설 사용과 터널 개설후 마을에서 2차로 병목현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로 했다.

당초 이 사업은 2023년 3월 준공 예정인데 공사 지연과 함께 병목 현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공사를 위한 공사’라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특히, 총 사업비 526억 중 297억이 부족한 상태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자체값 상승과 주민들 반대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는 총 3.75km 구간중 1.37km 개설에 필요한 229억 확보 진행중인 사업의 추후 대책 을 확인하고, 도로 구간 주변 주민들의 4차로 개설 반대 주장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카메라 고발’에서는 가을 내장산 단풍 행락철 문제되는 호객행위와 소음공해, 주차요금 시비 등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정읍시와 국립공원내장산사무소는 10월 21일부터 11월 말까지 무질서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런일 저런일’에서는 정읍의 전통문화를 아이들에게 알리기 위해 동화로 제작하는 정읍시립중앙도서관의 사업을 알리기로 했다.

이 사업은 고 김동필씨 ‘정읍의 전설’에 기반을 둔 동화를 바탕으로 4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19종을 제작해 배부할 계획이다.

▷‘현장 확인 중계’에서는 지난 3일 황토현기념관에서 열린 만석위 위치 고증 및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대회 내용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주관하고 정읍시가 후원한 사업이다.

▷기타 안건으로 편집위원들은 북면 소재 방치아파트 단지 재활용에 대해 정읍시가 전북도 특수시책에 선정됐다고 홍보해놓고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진행상황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정읍시가 운영중인 장난감 대여소에서 어린이 출산용품 및 돌사진 촬영 용품도 함께 대여하면 더욱 호평을 받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준화 기자

단풍 관광객과 함께 한 11월 첫주 프리마켓 성황

지역예술인 다양한 공연과 체험, 먹거리 부스 만남의 장소로



사진은 디지털트와 음료를 판매하는 ‘젊은문화상인들’ 부스에서 엄마와 체험을 즐기는 아이들(좌)과 단풍 관광객 함께 모이는 만남의 장소로 변했다.(우)

정읍시공동체활성화센터와 도시재생이 함께하는 11월 첫째주 프리마켓이 지난 4일(토) 오후 2시부터 정읍역 광장에서 진행됐다.

정읍역 광장 에 마련된 프리마켓은 내장산 단풍 절정기를 맞아 단풍관광에 나선 탐방객들이 먹거리 부스와 제품판매 부스, 체험부스 등을 ‘만남의 장소’로 이용할 정도로 호응이 좋았다.

내장산 단풍 구경을 마친 탐방객들이 열차 시간에 맞추기 위해 프리마켓에 들러 물건을 구입하고, 음식을 나누

며 막바지 여흥을 즐기는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

‘짱이아’ 김효정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프리마켓도 활기가 가득했으며, 단체로 사진을 촬영하거나 관심있는 제품 부스에서 상담하고 구입하는 탐방객이 많이 눈에 띄었다.

지난 1642호 본보에 소개된 ‘동학 1894혁명’을 판매중인 ‘귀리귀인’ 이재운 대표는 “내장산 탐방을 마치고 프리마켓을 찾은 사람들이 정읍의 상징인 동학농민혁명을 소재로 한 술 ‘동학

1894혁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자신의 고향이 고부라는 점을 밝히며 술을 제조하게 된 동기 등을 설명했다.

정읍시공동체활성화센터와 도시재생이 함께하는 프리마켓은 9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열리며, 리본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주최 주관하며, 정읍신문클럽이 후원한다.

이준화 기자

‘울퉁불퉁’ 우암로 운전자들 불편 끝, 아스콘 포장 마쳐

정읍시 18억 들여 주요 간선도로 11개소 아스콘포장

그간 지중화사업으로 인한 완전 복구가 늦어지면서 불편을 겪었던 우암로 구간 포장공사가 마무리 됐다.(사진)

정읍시 지역활력과 관계자는 우암로를 비롯한 지중화공사 구간의 임시포장으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과 관련해 이번주초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운전자들이 가장 불편을 느낀 곳은 동초동-쌍화차거리-새암로 연결구간으로 사업 초기부터 수개월간 불편을 호소했다.

본보 편집위원들도 “울퉁불퉁 도로로 인해 운전자들이 우암로를 피해 다닌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며 “공사중인 구간의 임시포장이라도 더욱 세심한 공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밖에 노후상수도관로 공사후 포장한 총정로 구 정읍교육청 인근 일부 구간은 재공사 후에도 침하가 계속돼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읍시는 노면 상태가 불량한 시내 주요 간선도로에 아스콘 포장 정비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11개 노선, 7.1km의 주요 간선 도로포장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 총 18억원을 확보, 시내권 4개



사진은 우암로 지중화 구간 아스콘 포장공사 모습

소에 6억원, 시외권 6개소에 11억원, 지역 내 전 지역 맨홀 단차 공사에 1억원을 투입했다.

시내권 사업대상은 ▲하북동 서부산업도로 850m ▲수성동 주공3차 260m ▲달하다리~교통공원 450m ▲내장산 단풍생태공원~회룡마루 1000m 등이다.

시외권은 ▲신대인읍 터미널 220m ▲감곡면 서남권 추모공원 인근 구 국도1호선 1400m ▲소성면 군도5호선 400m ▲임암면 군도 27호선 150m ▲북면 회전교차로~고모네장터 1600m ▲소성면 구 국도22호선 815m 등이다. 이와 함께 맨홀 단차로 인한 차량 운

행 불편 해소를 위해 97개소 정비를 완료했다.

시는 상반기에 시내권 3개소와 시외권 4개소 공사를 완료했고, 11월까지 시내권 1개소, 시외권 2개소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통행이 불편한 노후된 도로 기능을 복원시켜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2024년에도 충분한 예산 확보로 시민 불편함이 없는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보여주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화 기자

내장산동 휴먼시아3 경로당 ‘우수경로당 선정’

고재근 회장, 고령에도 활기찬 경로당 만들기 돋보여



정읍시 내장산동 휴먼시아3 경로당이 2023년 노인의 날을 맞아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회장 김두봉)로부터 우수경로당에

선정돼 화제다.

이날 고재근 회장은 700여 경로당 회장들이 모인 가운데 우수경로당 선정서와 함께 금일봉을 수상해 박수 갈채를 받았다.

휴먼시아3 경로당이 우수경로당의

로 선정된 것은 그동안 21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재근 회장이 고령에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애 노력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지원금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관리, 생일찾아주기,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살기좋은 지역공동체 만들기에 참여해 소속감을 심어줬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다양한 교육을 통해 회원간 화합과 경로당 발전에 기여했다.

〈김정식 금북지국장〉

단풍미인한우

정읍시에 648만원 상당 한우 162kg 기탁

단풍미인한우 영농조합법인(대표 진기춘)은 한우인의 날(11월 1일)을 맞아 1일 정읍시청을 방문해 648만원 상당의 한우불고기 162kg을 전달했다.

이날 진행된 기탁식에는 이학수 시장과 단풍미인한우 진기춘 대표가 참석했다.

기탁된 한우불고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해 각 읍면동에 전달돼 저소득 취약계층에 골고루 배분될 예정이다.

이준화 기자

2024년 정읍여고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1. 사업완료 : 2024년 10월경

2. 사 업 비 : 120억원(교육부지원 70억원, 도교육청지원 50억원)

3. 사업내용

- 그 린 학 교 : 탄소중립과 학생건강을 고려한 제로에너지 그린학교
- 스마트교실 : 첨단디지털 교실 구축으로 빅데이터·AI 등 ICT기반 스마트교실
- 공 간 혁 신 : 고교학점제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학습공간과 창의·융합공간 조성
- 학교복합화 : 학생 중심, 학교·지역이 상생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전승덕 교장



정읍여자고등학교

주 소 : (우 56191)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56-11

전 화 : 교무실 063-535-4546

행정실 : 063-535-4549 FAX : 063-535-7665